

빙그레, 지배구조 개편 본격화... '제때' 지주회사 통합 가능성

내년 지주회사-사업회사 인적분할 김동환 사장, '제때' 지분 33% 보유 지주회사 합병시 경영권 승계 영향 부당 내부거래 의혹... 도덕성 변수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에 나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각 사업부문별 사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가칭)'는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의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해 사업



빙그레 본사 사옥 전경 (원형사진) 김호연 빙그레 회장

/빙그레

전문성과 성장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가칭)'는 향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해 투자 및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해외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체제 전환이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빙그레의 지분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36.75%, 재단법인 김구 재단이 2.03%, 재단법인 현대문고가 0.13%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빙그레 주식 1.99%를 보유한 3대 주주인 물류회사 '제때'의 지분 33.34%를 김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

이 보유하고 있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김 사장은 구매와 마케팅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주요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빙그레가 인적분할 후 '제때'와 지주회사를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제때'와 빙그레 지주회사가 합병할 경우 지분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빙그레가 3세 경영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오너리스크가 승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빙그레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빙그레가 '제때'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다. '제때'는 빙그레와 빙그레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 등과 거래를 통해 몸집을 키워왔다.

'제때'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24.8%에서 2022년까지 32.4%로 꾸준히 확대됐다. 지난해 25.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

다. 이에 공정위는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 자회사를 통한 물류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 개인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 6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법적 분쟁중이다. 이러한 잡음들은 경영권 승계를 추진 중인 빙그레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빙그레 측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25%(100만9440주)를 전량 소각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분할과 승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백 "전 세계 명품 주얼리 만나보세요"

전시회 등 주얼리 상품 경쟁력 강화 연말 400억 규모 '하이 주얼리 페어'

최근 명품 주얼리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명품 주얼리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활용성뿐만 아니라 자산으로서 소장가치도 높아 예술 작품으로서 희소성과 투자적 가치 모두를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롯데백화점의 1~10월 명품 주얼리 매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신장했으며 연말 선물 시즌이 시작된 11월(1~22일)에 들어서서는 40% 이상 고신장하며 백화점 명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롯데문화재단과 함께 세계적인 주얼리 컬렉터 '카즈미 아리카와'의 최대 규모 보석 전시회를



하이주얼리페어 키바주얼 이미지 /롯데백화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연말 주얼리 고객 수요를 잡기 위한 '하이 주얼리 페어' 등도 연다.

/최빛나 기자 vitna@

먼저 롯데백화점은 연말 주얼리 구매 고객들을 위한 '하이 주얼리 페어'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에비뉴엘 잠실점 1층과 2층 본매장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하이 주얼리 페어'는 카르띠에, 불가리, 반클리프아펠, 쇼메 등 총 14개의 해외 유명 하이 주얼리 브랜드가 참여해 각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부터 특별 제작된 한정판 주얼리까지 총 130여개, 약 400억원 상당의 다양한 주얼리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의 상징적인 타원형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세팅한 약 18억원 상당의 '프로미스 링'은 이번 페어에서 국내 단독으로 공개된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박달 대게'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이 오는 28일까지 3개 점(본점, 잠실점, 강남점)에서 영덕에서 산지 직송으로 받은 '박달 대게'를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박달대게는 박달나무처럼 속이 딱딱해서 불리게 된 이름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자망협회로부터 인증받을 수 있다.

첫째는 눈부터 등딱지 아래인 갑장이 10cm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는 수율이 90% 이상, 셋째는 10개의 다리 중 9개 이상 달려있어야 한다.

박달대게는 무게 1.2kg 기준 약 16만 8000원에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호떡·붕어빵 등 겨울 길거리 간식 인기

이디야커피 '길거리 간식' 판매 급증

이디야커피가 지난 9월 선보인 겨울 '길거리 간식' 4종이 누적 판매량 70만 개를 돌파하며 겨울철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길거리 간식' 4종은 찬 바람 불면 떠오르는 겨울철 대표 간식 ▲꿀호떡 ▲콘치즈 계란빵 ▲팥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급격한 기온 강하로 인해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쫄깃한 찹쌀 반죽과 달콤한 호떡 소의 조화를 자랑하는 '꿀호떡'과 고

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인 '콘치즈 계란빵'이 이달 1일부터 21일간 각각 베이커리 판매 순위 2위와 3위에 오르며 추억의 겨울 간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량을 키워 리뉴얼 출시한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 또한 겉은 바삭, 속은 쫄득한 '겉바속촉'의 매력적인 식감과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으로 남녀노소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겨울 길거리 간식 메뉴는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은 물론 배달 서비스, 이디야오더, 네이버 스마트 주문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판

예약고객에 홀리데이 캔들 증정

스타벅스코리아가 25일부터 스타벅스 앱을 통해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다채로운 홀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고객 대상으로 스타벅스 별 5개와 홀리데이 캔들을 증정하고, 매장에서 케이크 수령시 플레이트(2개), 테이블보(1개), 토퍼(2개)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먼저 25일부터 27일까지 예약이 가능한 '조선텔리노엘 트리 케이크'는 조선호텔 110년의 노하우를 담은 브랜드 조선텔리와 함께 스킨 럭셔리 콘셉트로 기획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케이크다.

서울 지역 9개(강남논현점, 마곡사이언스타워R점, 별다방점, 보라매공원R점, 여의도IFC몰(L1)R점, 역삼이마트점, 용산역썬릿R점, 청담스타R점, 환구단점) 매장에서 내달 20일부터 25일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스타벅스

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달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는 '밀레앙 딸기 프렌치 플랑', '딸기 촉촉 초코 생크림 케이크', '홀리데이 더블 크림 트리 바움쿰', '산타 베어리스타 딸기 케이크', '스노우 크레이프 브쉬드 노엘' 등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5종도 선보인다.

케이크 수령은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이며 예약 시 지정된 매장을 방문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세븐일레븐, '세븐셀렉트 이비가짬뽕' 출시

세븐일레븐은 연말 시즌을 맞아 새로운 RMR 상품으로 국내 인기 짬뽕 맛집 '이비가짬뽕'과 콜라보한 '세븐셀렉트 이비가짬뽕'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비가짬뽕'은 짬뽕의 달인이라 불리는 권혁남 셰프가 개발한 비법 짬뽕 레시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입이 즐거워 계속 '입이 간다'는 뜻으로 브랜드명을 이비가짬뽕으로 명명하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이비가짬뽕과 손잡으며 실제 매장에서 먹는 맛과 동일하게 상품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사골육수를 베이스로 굴, 새우 추출물이 들어간 이비가짬뽕 비법소스와 함께 양배추, 목이버섯, 호박 등 풍성한 건더기를 구성해 매장에서 판매하는 맛과 비주얼을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했다.

/최빛나 기자